

## 버림받은 아버지

며칠 후면 ‘아버지의 날’이다. 아버지 날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현 시대의 아버지가 자꾸 왜소하게만 느껴짐은 왜 일까? 늙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작아진 아버지의 어깨처럼 서글픈 사진도 없다.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치 않는 일이 다반사고 당연시 되는 시대다. 하지만 부모가 혼자 살아갈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데 버림을 받았다면, 버려졌다면, 방치되었다면 너무 각박한거 아닌가. 얼마 전에 나보다 연배가 많으신 60 대 후반의 남자로 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마지막일지 모른다고도 한다. 몇년동안 소식도 없었고 뵙지를 못했으니 그동안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 두시간여 동안 그동안 살아온 일들을 이야기 한다. 신세한탄을 한다. 눈물을 흘린다. 목이 잠겨 말을 잇지 못한다. 나는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마음이 불편하다. 개인 가족사 문제이고 가족 쌍방의 문제이니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함도 아니요, 자식들의 잘못을 얘기하려 함도 아니다. 그저 내 자신을 되돌아 보며 생각해 할 뿐이다.

그는 강한 남자다. 거친 남자다. 살아온 세월이 순탄하지만 앓았을 것이다. 군대생활도 빠세게 했다. 신체도 건장하고 힘도 세다. 성격도 괄괄하고 직선적이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술도 잘 하고 입담도 세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딱히는(?) 남자다. 한마디로 썸생이는 아니다. 그는 60 이 다 된 나이에 이민을 왔다. 한국에서의 삶이든, 이민의 삶이든,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어찌 잘 한 일만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는 그의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와 40 년 가까이 산 아내는 그로 인해 질환을 앓고 있다.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났다. 자식들도, 아내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나이가 다된 70 에 영어를 하지 못하니 일자리도 없다. 한인 가게를 뒤지고 다녀도 아무도 그를 써주지를 않는다. 미국 노인 정책의 보호 대상자도 아니다. 그는 가진 돈도 전혀 없다. 오로지 전 재산은 남겨진 중고 자동차 한대 뿐이라고 한다. 그는 최근 2 년 가까이 그 자동차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한다. 그는 자녀들 집에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가지도 못한다. 경찰로 부터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해도 가족들 그 누구도 받지를 않는다고 한다. 지난해 추운 어느 겨울날, 배가 너무 고파서 자식들 집을 찾아 갔는데 자식들이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쫓겨났다고 한다. 수도 없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매번 그를 거절했다고 한다.

나는 그의 말을 백프로 다 맞다고 믿지 않는다. 아니 그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믿음도 강한 사람들이다. 자식들과 아내 모두가 그를 싫어한다면, 한명의 가족이라도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한국의 여느 아버지들 처럼 거친 언행과 폭력, 기물 파괴 같은 일련의 행동들 말이다.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에만 해도 어느 동네에서나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이다. 자식들을 몽둥이로 때리는 일은 다반사고, 아내를 때려서 아내의 눈이 밤탱이가 되어도 짝소리도 못하고, 화를 내거나 고함을 칠 이유도 되지 않는데 밥상이 대문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릇이나 가재도구가 부서지는 소리, 두들겨 맞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울부짖는 소리, 등등.. 변질된 아버지 상이다.

그는 나에게 자문을 구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관계는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깨어진다. 물론 세상에는 신뢰가 깨어졌지만, 재산상의 문제든, 혈연이라는 운명적 구속이든, 세인들의 구설수가 두려워서든, 어쩔 수 없어서 부부나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가족은 신뢰도, 관계도, 희망도 깨어진 상태다. 관계에는 쌍방이 존재한다. 저쪽이 문을 닫고 거부하면 이쪽은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관계 개선과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이면 누구나 잘못을 한다. 실수도 한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당사자에게는 씻겨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면? 그 상처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매 순간 순간 가족들에게는 공포가 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더 이상은 상처받은 자식들이나 아내에게 접근하거나 구걸하지 마라. 가족들에게 용서도 빌만큼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빌었고, 해명도 할 만큼 했다면, 받아드리고 받아드리지 않는 것은 자식들의 선택이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로, 남편으로 받아주면 감사한 일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승의 연(緣)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해라. 인과응보 (因果應報)고, 자업자득 (自業自得)이며, 사필귀정 (事必歸正)이고, 결자해지 (結者解之)다. 아버지는 아버지이어야 한다.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진정한 홀로됨은 인생 말년의 축복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모든걸 내려놓고, 자식을 원망하거나 야속해 할 필요도 없다. 부모가 몹쓸 병에 걸리거나 치매일 때 전혀 낫선 땅에 버리는 자식들도 많은 세상이다.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다. 선한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며 선하게 살면 된다. 다행히 아직은 크게 아픈 곳이 없으니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미국에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의 아픈 영혼을 받아줄 곳도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을 포기하면 안된다. 살아 있다는 자체가 희망이다. 나는 이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되길 소망한다.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고 살다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힘내세요.